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어머니양육행동의 영향[†]

Children's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relation to their Negative Emotionality, 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권연희*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Kwon, Yeon 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n their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355 children(174 boys, 181 girls; aged 4-5 years old) and their mothers. The teachers completed rating scales to measure the children's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The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were assessed by a mother report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had a negative relation to their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Mother's limit-setting and rejection-neglec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relational aggression, whereas mother's warmth-encouragement and rejection-neglect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overt aggress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teraction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overprotection-permission predicted children's overt aggressio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whose mothers demonstrated middle and high level of overprotection-permission, was associated significantly with overt aggression. In addition,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aggressions were mediated by their emotion regulation. The findings point to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rela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Keywords: aggression, negative emotionality, emotional regulati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I. 서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주변의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유아는 가족 내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성장하면서 형제, 또래, 교사 등 다양한 사

회적 관계를 발달시킨다. 또래 집단은 유아기 경험을 대표하는 맥락으로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유아 발달에 의미 있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유아는 이후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는데, 또래 거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공격성을 들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KS-2010-11)

* Corresponding author: Kwon, Yeon Hee

Tel: 051-629-5498, Fax: 051-629-5493

Email: yeonheekwon@pknu.ac.kr

지금까지 공격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공격적 행동의 한 형태인 신체적 측면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외현적 공격성, 즉, 밀기나 때리기와 같이 밖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에만 관심을 가져왔다(Berkowitz, 1993; Parke & Slaby, 1983). 그러나 최근 들어 신체적 측면에 해를 입히는 외현적 공격성 이외에 관계에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김지현 외, 2009).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관계나 사회적 소속감을 손상시키거나 조종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된다(Crick & Grotpeter, 1995). 초기 공격성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에 집중되어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라는 견해가 일반화되었지만, 이후에 다른 유형의 공격성 즉 관계적 공격성을 함께 비교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nica *et al.*, 2003; Crick & Grotpeter, 1995). 이러한 공격성 연구의 흐름 속에서 Little *et al.*(2003)은 공격성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공격성이 크게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두 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격성에 대한 개념적 확대를 인하여 남, 여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유아의 공격성 및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기 초기 공격행동이 공격성에 대한 발달 경로 이해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Tremblay(2000)가 지적한 것과 같이 지난 25년간 아동 공격성 연구는 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 공격행동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경향은 외현적 공격성 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몇 편의 연구만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을 뿐이다(김지현 외, 2009; Bonica *et al.*, 2003; Ostrov *et al.*, 2004). Ostrov *et al.*(2004)은 종단연구 결과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개인차가 유, 아동기에 걸쳐 유지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보는 연구는 취학 전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에 대한 체계적 중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은 크게 개인 내 요인과 대인간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아의 공격성과 관

련된 개인 내 요인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사회적 행동에서 정서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공격성과 또래관계 등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권연희, 이종희, 2005). Rubin *et al.*(1991)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좌절이 요구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또래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Stocker와 Dunn(1990)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유아가 더 많은 또래 거부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Eisenberg *et al.*(1993) 역시 취학 전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남, 여아의 사회적 기술 및 남아의 또래 지위에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사회정보처리요소 및 정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최인숙, 이강이(2010)의 연구에서 분노의 정서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조절은 타인과 상호작용 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대인 간 상호작용 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다. Cole *et al.*(1994)의 연구에서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었는데,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남아는 실패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기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였다.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성연, 강지훈(2005)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정서를 기능적으로 잘 조절하지 못하는 남아일수록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여아는 높은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한유진(2004) 역시 정서조절 능력이 과잉행동 및 공격 행동과 같은 외현적 행동 문제와 관련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된 대인간 요인으로는 어머니 양육행동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공격성에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유아의 공격성에 있어서 부모의 훈육 방법이 영향을 미치며(Travillion & Snyder, 1993), Hart *et al.*(1998)에 따르면 부모의 반응 수준이 낮고 강압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유아의 공격성이 높았다. Olweus(1991)는 다른 양육행동보다 어머니의 공격성에 대한 허용성이 실제로 아동기 신체적 공격성을 가장 잘 예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허용적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공격할 때 자신

의 자녀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신체적 공격 행동이 수용되는 것과 같이 자녀에게 잘못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머니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 간의 결과들을 토대로 관계적 공격성도 유사한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ampbell(1995)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방식, 비일관적인 훈육이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tocker(2000)는 어머니-아동 간 적대성과 부모의 감독 부재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McNeill(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양육행동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Colwell *et al.*(2002)은 유아가 외현적 공격 행동을 하는 에피소드보다 관계적 공격 행동을 하는 에피소드에 대하여 어머니의 개입이 적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다르고, 그 결과 유아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Nelson과 Crick(2002)은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유아와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유아의 가정 내 친밀한 관계가 다름을 제안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앞선 선행연구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양육행동과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 모두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연구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유아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관련되는 어머니의 구체적 양육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은 부정적 정서성 및 정서조절과 같은 개인 내 요인 및 어머니양육행동과 같은 대인간 요인과 관련되는데,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개인 내, 대인간 요인은 각각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작용적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유아의 공격성이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Rubin *et al.*(1998) 연구에서 화를 잘 내고 우는 등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에게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지만 이러한 관계는 유아의 성과 어머니 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어머니가 부정적 지배 행동을 보이는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연희, 박경자(2003) 역시 남아의 또래 수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주었다. 선행연구들이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대해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유아의 기질의 정서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경험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Bate와 Pettit(2007)는 부모양육행동과 유아 기질이 공격성과 같은 아동의 적응문제 발달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의 부가적이고 상호작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호작용적 입장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양육행동이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요인인 정서조절 역시 어머니양육행동과 상호관련되어 있는데, Kopp(1989)는 유아가 유능한 정서조절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주요 대상인 어머니와의 긍정적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미애(2002)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부정적 정서의 회복력을 증가시켜 적절한 정서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Chang *et al.*(2003)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미나, 권연희(2010) 역시 어머니의 통제를 적게 하고 놀이를 격려하는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매개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어머니양육행동이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공격성 발달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성의 두 가지 유형 즉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 내 요인으로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및 대인간 요인으로서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하여 상호작용적 입장에서 그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 공격성에 대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및 어머니양육행동이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

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유아의 공격성의 예방 및 증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는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을 통해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 355명(만4세, 124명; 만5세, 23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아가 174명(49%), 여아 181명(51.0%)이었으며, 첫째 또는 외동인 경우가 5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둘째인 경우(37.9%), 셋째 이상인 경우(4.4%)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대부분(82.6%)이었으며,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고(46.7%) 다음으로 전문대졸(23.5%)이었다.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54.4%, 홀벌이 45.6%이었으며, 가계월평균 수입은 300~400만원 미만인 2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19.7%), 400~500만원 미만(16.0%) 순이었다.

2. 연구 방법

1)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고자 Crick *et al.*(1997)의 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Teacher Form(PSBS)의 일부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지현 외(2009)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관계

적 공격성 6문항, 외현적 공격성 6문항으로 이루어진 교사평정질문지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러하다)의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관계적 공격성 .93, 외현적 공격성 .94이었다.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ubin *et al.*(1995)이 사용한 유아 기질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정적 정서성(5문항)과 진정성(5문항)으로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부정적 정서성만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평소 유아가 보이는 행동에 기초하여 어머니가 평정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러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잘 울거나 화를 내는 등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 성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3)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희(1998)의 교사용 정서 지능 평정도구 중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 하위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러하다(5점)'의 5점 척도로 9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충동 특히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4)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2001)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최정윤(200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 하위 영역의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진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러하다(5점)'의 5점 평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 별 문항수와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온정·격려 7문항(.82), 과보호·허용 4문항(.68), 한계설정 6문항(.65), 거부·방임 6문항(.77)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부산·경남, 대전, 서울/경기 지역에서 임의 선정된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8곳의 만 4,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용 질문지는 기관의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한 뒤 교사를 통해 회수하였고, 교사용 질문지는 학급의 주교사들에게 평정척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1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어머니 질문지 505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380부가 회수되어 75%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355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예비분석 결과 일부 측정변인이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이후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유아의 성을 통제한 뒤 부분상관계수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해서 유아의 성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해당 어머니 행동을 평균과 표준편차의 점수분포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집단별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공격성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어머니양육행동이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 각각에 대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그리고 어머니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남녀별로 제시하고, 두 집단 간 평균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의 문항평균은 남아 2.11, 여아 2.32로 여아가 더 높았으며($t=-2.05, p<.05$),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 2.08, 여아 1.68로 남아가 더 높았다($t=4.02, p<.001$). 1~5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할 때 유아들은 보통보다 낮은 정도로 공격성을 보였다. 부정적 정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변인	전체(N=355)		남아(n=174)		여아(n=181)		t
		M	SD	M	SD	M	SD	
유아	관계적 공격성	2.22	.99	2.11	.94	2.32	1.03	-2.05*
	외현적 공격성	1.87	.96	2.08	1.05	1.68	.82	4.02***
	부정적 정서성	3.05	.72	3.04	.65	3.06	.78	-.31
	정서조절	3.67	.70	3.54	.71	3.80	.66	-3.65***
어머니	온정·격려	3.54	.59	3.54	.60	3.54	.58	-.05
	한계설정	3.50	.61	3.54	.61	3.46	.61	1.18
	과보호·허용	1.97	.62	1.98	.65	1.96	.59	.35
	거부·방임	2.90	.60	2.92	.58	2.89	.62	.49

* $p<.05$, *** $p<.001$

서성은 남아 3.04, 여아 3.06으로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1~5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 유아들이 기질적으로 중간정도의 부정적 정서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정서조절은 남아 3.54 여아 3.80으로 여아가 더 높았으며($t=-3.65, p<.001$), 1~5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보통보다 높은 정도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양육행동은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어머니양육행동의 문항평균은 온정·격려 3.54, 한계설정 3.50, 과보호·허용 1.97, 거부·방임 2.90으로 나타났다. 1~5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해 온정적이고 격려하는 양육 및 규칙을 안내하는 등의 한계설정 양육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중간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허용하는 것과 같은 양육행동 및 자녀에게 위협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중간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유아의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 및 일부 변인에서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에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된 이후 분석에서는 유아의 성을 통제한 다음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및 어머니양육행동과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

유아의 성을 통제한 뒤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계수(유아의 성 통제)

N=355

변인	(1)	(2)	(3)	(4)	(5)	(6)	(7)	(8)
(1) 관계적 공격성	1.0							
(2) 외현적 공격성	.71 ^{***}	1.0						
(3) 부정적 정서성	.13 [*]	.18 ^{**}	1.0					
(4) 정서조절	-.41 ^{***}	-.53 ^{***}	-.22 ^{***}	1.0				
(5) 온정·격려	-.09	-.14 ^{**}	-.28 ^{***}	.13 [*]	1.0			
(6) 한계설정	-.13 [*]	-.09	-.17 ^{**}	.12 [*]	.19 ^{***}	1.0		
(7) 과보호·허용	-.02	-.02	.10	-.06	-.03	-.39 ^{***}	1.0	
(8) 거부·방임	.20 ^{***}	.20 ^{***}	.40 ^{***}	-.19 ^{***}	-.60 ^{***}	-.04	-.01	1.0

* $p<.05$, ** $p<.01$, *** $p<.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각각 $r=.13, p<.05$; $r=.18, p<.01$).

즉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거거나 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 성향이 높은 유아일수록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을 많이 보였다. 유아의 정서조절은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각각 $r=-.41, p<.001$; $r=-.53, p<.001$).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나 충동을 잘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유아일수록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을 덜 보인다는 것이다.

어머니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한계설정 및 거부·방임 양육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각각 $r=-.13, p<.05$; $r=.20, p<.001$). 또한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온정·격려 및 거부·방임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각각 $r=-.14, p<.01$; $r=.20, p<.001$).

즉, 자녀양육 시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과 같은 한계설정 행동을 덜 보이는 어머니의 유아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며, 자녀를 격려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는 양육을 덜 보이는 어머니의 유아가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자녀에 대하여 거부·방임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유아가 관계적 공격성 뿐 아니라 외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가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Baron과 Kenny(1986)는 두 변인 사이의 관계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을 중재변인이라고 보고, 이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 효과,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가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유아의 성을 회귀분석의 1단계에 투입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2단계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3단계에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모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차화점수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하고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는 .695 ~ .977, VIF 지수는 1.023 ~ 1.681의 분포로 허용 가능한 정도이므로 독립변인 간 다

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부정적 정서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양육행동이 중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모델 단계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아의 성을 제외하고, 어머니 양육 행동 중 한계설정 양육($\beta = -.14, p < .05$)과 과보호·거부 양육($\beta = .20, p < .01$)만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8%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여 안내하지 않고, 자녀를 거부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그들의 자녀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관계나 사회적 소속감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관계적 공격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2)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양육행동이 중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

<표 3>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

N=355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유아의 성(더미변수)	.22	.11*	.21	.11*	.21	.1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06	.05	.06	.04
온정·격려 양육			.10	.06	.09	.05
한계설정 양육			-.25	-.15**	-.23	-.14*
과보호·허용 양육			-.13	-.08	-.14	-.09
거부·방임 양육			.34	.21**	.32	.20**
정서성×온정·격려 양육					-.05	-.02
정서성×한계설정 양육					-.15	-.07
정서성×과보호·허용 양육					.07	.04
정서성×거부·방임 양육					-.03	-.02
수정된 R ²	.01		.08		.08	
ΔR^2			.07		.00	
F	4.27*		4.68***		3.12**	

* $p < .05$, ** $p < .01$, *** $p < .001$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단계 모델에서 유아의 성의 효과를 제외하고, 거부·방입 양육($\beta=.14, p<.0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항($\beta=.13, p<.05$)이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총 13%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가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상, 중, 하 세 개 집단을 구분한 뒤, 각 집단별로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적 공격성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점수분포 상 동점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별 사례 수는 달랐으며, 각 집단별 상관계

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이 중간이상으로 높은 집단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의 하위 집단에서는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적 공격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부정적 정서 성향이 높은 유아일수록 외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만,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중간 수준 이상의 과보호·허용 양육을 보일 경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낮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을 보일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영향

<표 4>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

N=355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유아의 성(더미변수)	-.39	-.21***	-.40	-.21***	-.40	-.2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14	.11	.14	.11
온정·격려 양육			-.01	-.01	-.02	-.01
한계설정 양육			-.14	-.09	-.10	-.07
과보호·허용 양육			-.09	-.06	-.09	-.06
거부·방입 양육			.24	.15*	.23	.14*
정서성×온정·격려 양육					-.01	-.00
정서성×한계설정 양육					-.17	-.09
정서성×과보호·허용 양육					.25	.13*
정서성×거부·방입 양육					-.01	-.00
수정된 R^2	.04		.10		.13	
ΔR^2			.06		.03	
F	15.04***		6.29***		5.00***	

* $p<.05$, ** $p<.01$, *** $p<.001$

<표 5>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 수준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적 공격성의 부분상관계수 (유아의 성 통제)

상관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적 공격성 점수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	
상위집단(n=108)	$r = .29^{**}$
중간집단(n=126)	$r = .23^*$
하위집단(n=121)	$r = -.02$

* $p<.05$, ** $p<.01$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매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 종속변인 간의 상호상관이 유의해야 한다는 Baron과 Kenny(1986)의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앞선 상관분석결과를 토대로 상호상관이 유의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은 유아의 성을 통제한 뒤, 한계설정 및 거부·방임 양육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정서조절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현적 공격성은 유아의 성을 통제한 뒤, 온정·격려와 거부·방임 양육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조절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는 .645~.981, VIF 지수는 1.021~1.550의 분포로 허용가능한 정도이므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 및 거부·방임 양육과 매개 변인인 유아의 정서조절 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던 한계설정 양육($\beta=-.14, p<.01 \rightarrow \beta=-.09, n.s.$)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거부·방임 양육($\beta=.18, p<.001 \rightarrow \beta=.12, p<.01$)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며, 어머니 한계설정 및 거부·방임 양육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유아의 정서조절($\beta=-.38, p<.001$)의 영향은 유

<표 6>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조절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55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유아의 성	.22	.11*	.21	.11*	.32	.16**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			-.22	-.14**	-.15	-.09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			.30	.18***	.19	.12*
유아의 정서조절					-.64	-.38***
수정된 R^2	.01		.06		.19	
ΔR^2			.05		.14	
F	4.27*		8.10***		21.85***	

* $p<.05$, ** $p<.01$, *** $p<.001$

<표 7>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조절의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N=355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유아의 성	-.39	-.21***	-.39	-.20***	-.25	-.13**
어머니의 온정·격려 양육			-.04	-.02	-.02	-.01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			.30	.19**	.16	.10
유아의 정서조절					-.97	-.50***
수정된 R^2	.04		.08		.32	
ΔR^2			.04		.24	
F	15.04***		10.41***		39.80***	

** $p<.01$, *** $p<.001$

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 조절의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은 6%에서 정서 조절이 추가 투입된 후 19%로 향상되었다. 즉, 어머니의 한계 설정 및 거부·방임 양육 행동이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정서 조절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양육행동과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온정·격려 및 거부·방임 양육과 매개 변인인 유아의 정서조절 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던 거부·방임 양육($\beta=.19, p<.01 \rightarrow \beta=.10, n.s.$)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 거부·방임 양육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유아의 정서조절($\beta=-.50, p<.001$)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은 8%에서 정서조절이 추가 투입된 후 32%로 향상되었다. 즉,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 행동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및 정서조절, 어머니 양육행동이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머니 양육행동이 중재하는지,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가 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별 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유아의 성에 따른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차이를 논의하면,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며,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간접적

공격 행동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박영신, 2004; Bonica *et al.*, 2003; Crick & Groper, 199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Crick과 Groper(1995)는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관계에서 친밀함과 같은 관계지향적 목적을 방해하는데 더 유능하기 때문에 남아보다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공격성의 문항평균 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 대상은 공격성 점수가 별로 높지 않은 집단이므로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및 어머니양육행동 각 변인과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 모두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거나 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 성향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신체적으로 때리는 것과 같은 외현적 공격행동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나 소속감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관계적 공격 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성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 연구들(권연희, 이종희, 2005; 최인숙, 이강이, 2010; Eisenberg *et al.*, 1993; Rubin *et al.*, 1991; Stocker & Dunn, 1990)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Niu(2009)는 아동이 관계적 공격행동을 할 경우 자극에 대해 분노를 경험하는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 성향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맥락에서 평소 상호작용 시 짜증을 내거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교사에게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평정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은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적합하게 조절하여 반응할수록 유아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낮은 것으로 교사에게 평가되었다.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연구들(박성연, 강지훈, 2005; 한유진, 2004; Cole *et al.*, 1994)을 지지하는 결과로, 정서가 행동을 동기화한다는 Izard(1994)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즉각적으로 부정적 반응

을 보이지 않고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 역시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구체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은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녀양육 시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며,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한계설정 양육 행동을 덜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며, 자녀에 대해 애정표현 및 칭찬과 격려와 같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외현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신체적 처벌을 하거나 유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부·방임적 양육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관계적 공격성 뿐 아니라 외현적 공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Campbell, 1995; Hart *et al.*, 1998; Oweus, 1991)과 유사한 결과이다. Stocker(2000)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부재 시 청소년 자녀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영옥 외(2008)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생활에 제한적 범위를 설정해 주고 이를 지키도록 제안하는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간의 부적 상관을 보인 본 연구결과와 입장을 같이 한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현적 공격성에 대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과보호·허용 양육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를 중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의 본질을 탐색해 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 점수가 중간 이상인 경우에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적 공격성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부정적 정서성이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내,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상호작용적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선행 연구들(권연희, 박경자, 2003; Bate & Pettit, 2007; Rubin *et al.*,

1998)과 입장을 같이 한다. 권연희, 박경자(2003)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남아가 또래에게 덜 수용되었으나,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 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Rubin *et al.*(1998)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가 또래에게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지배행동을 많이 보이는 남아의 경우에 유의하다고 하였다. Bate와 Pettit(2007)는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적응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양육행동과 유아 기질의 부가적이고 상호작용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일부 하위행동에 한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부합된다. 따라서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같은 유아의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유아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 성향과 부모의 부정적 관계 맥락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양육행동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어머니양육행동과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한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행동이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 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의 매개역할을 보여준 선행연구들(노미나, 권연희, 2010; 박미애, 2002; Chang *et al.*, 2003)과 맥을 같이한다. 노미나, 권연희(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낮은 통제 및 놀이격려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관되게 한계설정을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놀이를 권장할수록 유아는 자기조절력을 학습하고 수행하게 되어 이것이 다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양육자로부터의 적절한 통제는 유아의 내재적 통제로 전이되므로 어머니가 유아에게 어떠한 행동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유아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가는 유아의 자기 발달에 중요하다(박영태, 이경님,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가 자

녀양육 시 적절한 규칙을 안내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표현기술의 습득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며, 이는 또래 간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였을 때 유아로 하여금 또래관계를 손상시키는 관계적 공격행동을 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주로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어머니와의 관계 맥락에서 바람직한 정서조절기술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정서조절력이 낮은 유아들은 또래와의 관계맥락에서 갈등상황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아의 공격성은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 어머니양육행동의 영향은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하여 부정적 정서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은 그의 어머니가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을 보통 이상으로 많이 보일 때 더 커진다. 또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은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은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공격성의 유형을 구분하여 개인내 요인인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및 대인간 요인인 어머니양육행동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성향을 지닌 유아가 높은 외현적 공격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어머니가 낮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외현적 공격성의 어려움을 지닌 유아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계획 시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더불어 어머니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조절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된다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더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교사가 유아의 공격성과 정서조절을 평정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동일한 평정자의 편견이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에 대해 또래 평가, 직

접 관찰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이해할 때 양방적인 관계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유아의 성을 통제된 뒤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회귀분석결과 유아의 성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유아의 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들의 공격성을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는 점,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 내, 대인간 변인을 포함하여 살펴보고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관계 과정을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이 시기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공격성,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어머니양육 행동

참 고 문 헌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정서성 및 어머니 행동과 또래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3-38.
- 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경희. (1998). 교사용 유아정서지능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옥, 홍지명, 김세로, 김권일.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05-228.
- 김지현, 정지나, 권연희, 민성혜. (2009). 유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공격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2), 145-159.
- 노미나, 권연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4), 31-41.
- 박미애. (2002). 부모의 정서 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 수용능력과 감정조절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영신. (2004).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 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태, 이경님. (201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235-256.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숙, 이강이. (2010).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5-34.
- 최정윤. (2008). 보육시설 아동의 코티솔 수준: 보육경험, 사회계층, 어머니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유진. (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6-7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te, J. E., & Pettit, G. S. (2007). Temperament, parenting, and socialization. In Grusec J. & Hastings P.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pp. 153-177). New York: Guilford.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Bonica, C., Arnold, D. H., Fisher, P. H., Zeljo, A., & Yershova, K. (2003). Relational aggression,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12(4), 551-562.
- Campbell, J. J. (1995). Familial antecedents to children's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3(10-B), 4940.
- Chang, L., Schwartz, D., Dodge, K.,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98-606.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 (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835-846.
- Colwell, M. J., Mize, J., Pettit, G. S., & Laird, R. D. (2002). Contextual determinants of mothers' interventions i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8(4), 492-50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697.
- Izard, C. E. (1994). Cognition is one of four types of emotion-activating systems. In Ekman, D. & Davidson, D. J.(Eds.), *The nature of emotion: Fundamental question*(pp. 203-2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 McNeill, S. K. (2002).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discipline practices, gender, and children's overt and

- relational aggress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2(11-A), 3701.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 161-189).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iu, J. (2009). Internal factors related to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 4(1), 1-8.
- Olweus, S.,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Pepler, D. J. & Rubin, K. H.(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411-447). Hillsdale, NJ: Erlbaum.
- Ostrov, J. M., Burr, J. E., Jansen, E. A., Cullerton-Sen, C., & Crick, N. R. (2004).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examinat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Washington DC.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Mussen, P. H.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processes*(4th ed., pp. 547-624). New York: Wiley.
- Rubin, K. H. Coplan, R. J., Fox, N. A., & Calkins, S. D. (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 49-62.
- Rubin, K. H., Hastings, P., Chen, X., Stewart, S.,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Rubin, K. H., Hymel, S., Mills, R. S. L., & Rose-Krasnor, L. (1991). Conceptualizing different pathways to and from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In Cicchetti, D. & Toth, S. (Eds.), *The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pp. 91-12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cker, C. (2000, March). *Adolescent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Links with family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Poster presented at the Eighth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SRA) Chicago, IL.
- Stocker, C., & Dunn, J.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3), 227-224.
- Travillion, K., & Snyder, J. (1993). The role of maternal discipline and involvement in peer rejection and neglec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1), 37-57.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접 수 일 : 2011. 08. 17.

수정완료일 : 2011. 09. 07.

게재확정일 : 2011. 09. 08.